



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 충남지역 종교관계자와 '자살예방 협력' 간담회 개최

- 4. 8.(수), 생명지킴추진본부-충남지역 종교계에 자살예방스티커 배포 및
성직자 자살예방 활동 참여 협의

-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)는 4월 8일(수),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종교계 관계자와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간담회는 충남 지역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, 주요 종교관계자*가 참여한 가운데 자살예방 홍보스티커 배포와 성직자의 생명지킴이 활동 참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.
- * 불교(마곡사, 수덕사), (성공회)대전교구, 원불교(충남교구), 천주교(대전교구)
- 먼저, 자살예방 상담 전화(109)가 명시된 홍보스티커를 충남 지역 내 번개탄을 판매하는 편의점, 마트, 상점 등에 배포하도록 종교계에 협조를 요청하였다. 이는 자살 수단으로 남용되는 번개탄을 차단하여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 충남 지역 종교계는 “이번 스티커 배포를 시작으로 충남 전역에 생명 존중의 불씨를 지피겠다”고 적극 화답하였다.
- 또한, 추진본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나 법문, 교육과 소식지 등을 통해 ‘생명은 무엇보다 귀하다’는 메시지를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 이에 종교계는 부활주일, 석가탄신일, 자살예방의 날 등 주요일을 계기로 종교인들이 자살에 대한 현황을 깊이 인식하고, 주변 사람들이 위기 징후가 보일 때 자살예방기관으로 안내하는 생명지킴이 활동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.

□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전국 17개 시·도 종교계와 자살예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, “종교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주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”고 강조했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장	이효식 (044-200-6369)
	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사무관	김봉주 (044-200-6387)

